2009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 답

1	⑤	2	④	3	④	4	①	5	③
6	②	7	⑤	8	⑤	9	④	10	③
11	②	12	⑤	13	④	14	⑤	15	④
16	③	17	①	18	⑤	19	②	20	①
21	④	22	③	23	②	24	③	25	②
26	④	27	③	28	③	29	③	30	⑤
31	①	32	④	33	②	34	⑤	35	①
36	①	37	②	38	②	39	⑤	40	②
41	①	42	③	43	③	44	①	45	⑤
46	②	47	⑤	48	④	49	①	50	③

해 설

[1]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마을에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는 항상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가 풍성하고, 옮겨 심어도 잘 살아나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나무를 기르는 비법을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만 나무가 그 본성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따름입니다. 나무는 심을 때에는 뿌리를 잘 뻗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본래부터 자라던 장소의 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질 때에는 꼭꼭 밟아서 흙이 뿌리에 잘 붙게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나무의 본성에 맞게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을 때에는 뿌리를 주먹처럼 오그라들게 하며 흙을 채울 때에는 본래부터 붙어 있던 흙을 털어버리고 다른 흙으로 바꾸어 넣습니다. 심은 다음에는 아침에 와서 들여다보고 저녁에 와서 어루만지고, 심한 경우에는 나무의 껍질을 손톱으로 벗겨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펴보기도 하며, 뿌리를 흔들어서 단단히 심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나무는 쇠약해져서 결국 말라죽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에게 무슨 남다른 재주가 있겠습니까?"

1. [출제의도]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은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의 본성을 살리고, 나무를 심은 후에는 나무의 성장에 간섭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소질(본성)을 고려하고,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남학생 : 오늘 아침에 지각했거든. 그 때문에 생활지도부 선생님께 혼나고 종일 기분이 안 좋아.
여학생 : 왜? 늦잠 잤어?
남학생 : 아냐, 나오긴 평소대로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역을 물으시잖아. 그래서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다보니까 내가 탈 버스 한 대를 놓쳐 버린 거야. 결국 다음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어.
여학생 : 그래도 지각은 지각이네. 착한 일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학교 규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
남학생 : 그렇지만, 왜 지각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고 벌을 줘야 하는 것 아냐? 단순히 게을러서 지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다르잖아.
여학생 : 규칙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지각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지각한 이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 더구나 생활지도부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각한 학생들의 사정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어렵지.
남학생 : 그래도 규칙을 지키지 못한 사실 자체만 가지고 모두 똑같은 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친 거 아니야?
여학생 : 착한 일을 했는데도 고작 지각 몇 분 했다고 혼이 나니까 아주 속상했나보네? (웃음)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　　)

2. [출제의도] 대화의 흐름에 맞게 이어질 말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두 사람은 '지각'이라는, 규칙에 어긋난 결과를 두고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남학생은 규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 동기나 의도, 상황을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남학생은 지각이라는 결과보다는 지각을 하게 된 과정을 고려해 벌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⑤ 남학생은 규칙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무조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3]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00여 년 전,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은 줄다리기를 통해 집단에 속한 각 개인들의 공헌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이 당길 수 있는 힘의 크기를 100으로 보았을 때, 2명, 3명, 8명으로 이루어진 각 집단은 200, 300, 800의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2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잠재적인 기대치의 93%의 힘의 크기만이, 3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85%, 8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겨우 49%의 힘이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일할 때보다 집단 속에서 함께 일할 때 노력을 덜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링겔만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집단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가 개인의 존재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집단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고 여기거나 자신이 없어도 집단의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업무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것은 자명합니다.

3. [출제의도] 들려준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링겔만 효과는 집단 내의 구성원 스스로가 개인의 존재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내 교육을 강화하여 사원들이 자기 업무에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겠다는 ④가 링겔만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오답풀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①), 근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②), 능력 있는 인재만을 선발하는 것(③), 부서의 인원을 늘리는 것(⑤)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존재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4~5] 이번에는 방송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의 선행학습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김철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선행학습은 학교에서 공부할 내용을 예습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권장할 일이 아닌가요?
김 교수(남) :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예습과 선행학습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선행학습은 대체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학교 진도를 한 달 이상 앞질러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몇 해 동안 연구한 결과로는 선행학습이 성적 향상을 가져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행학습은 권장할 만한 공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행자(여) : 예, 그렇군요. 하지만 납득이 잘 가질 않네요. 선행학습을 한 뒤에 학교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배우면, 교과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교수(남) :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행학습을 할 때에는 학생들이 잘 몰라도 진도를 나가는 데 급급합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배울 테니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대충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막상 학교 수업 중에는 미리 배운 내용이라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수업에 흥미를 잃어 산만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많습니다.
진행자(여) : 자녀들의 학업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부모들은 선행학습이라도 시키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학부모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김 교수(남) :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선행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학원과 과외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 주로 문제 푸는 요령만 배우다 보니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별 효과도 없고 사교육비 부담만 안겨 주는 선행학습을 계속 시키는 것보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한 가지를 알아도 제대로 알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은 긴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의 학습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자(여)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출제의도] 발화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자(진행자)는 선행학습이 예습과 같은 것이고(첫 번째 말),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으며(두 번째 말), 이런 이유로 자녀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려는 학부모들의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세 번째 말)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상대방의 발언을 이끌어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통념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⑤ 여자의 두 번째 말에서 '예, 그렇군요.'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

5. [출제의도] 발화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행학습이 학생들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언급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④ 김 교수가 '학생들이 학원과 과외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라고 언급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라고 말하는 부분과 이어지면서, 선행학습이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통해 주제에 맞게 연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 나타난 학생의 생각은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이므로, 여기서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는 연상 내용은 적절하다. ⑤ ㉤에는 산에 가본 경험이 없어 등산에 대해 머뭇거리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는 유해한 게임과 좋은 책을 대조하고 있고,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하여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활유법이 쓰였으며, '좋은 책은 영혼을 살찌운다'고 하여 독서를 권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대조적 표현만 사용되었다. ② 독서를 권유하는 내용과 활유법이 사용되었지만, 대조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독서를 권유하는 내용과 대조적 표현은 사용되었지만, 활유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대조적 표현과 활유법은 사용되었지만, 독서를 권유하는 내용은 없다.

8. [출제의도] 내용에 따라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가)는 최근 3년 동안 외국 영화의 상영관 점유율은 계속 높아 가는 데 비해, 한국 영화의 상영관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나)는 영화 제작 편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낸 작품의 편수가 감소하고 있음과 한국 영화가 적자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다)의 자료는 적정 제작 편수보다 훨씬 많은 영화를 제작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현상을 보여준다. ⑤는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가), (나), (다)를 활용하여 생성한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다)의 자료를 통해, 적정 제작 편수보다 훨씬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관객들이 한국 영화 전체에 부정적 인상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의 자료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의 자료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글의 개요를 수정하거나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본론 3'의 '김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은 '본론 2'의 '김치 세계화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 상위 항목인 '김치 세계화를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되, 'Ⅱ(본론)-2-가'의 '유통 기한이 짧음'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김치 박물관의 건립'은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는 방안이 아니다. 한편, 이것을 수정한 방안인 '국내 소비자들의 김치 선호도 조사'도 '유통 기한이 짧음'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적절한 수정으로 보기 어렵다. ㉣은 '유통 기한을 늘릴 수 있는 포장 기술의 개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호응을 고려하면 ㉡은 '벗어나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이 가리키는 '마음의 평화'는 도시의 빌딩 숲을 '벗어나기 위해' 얻은 것이 아니라, 여행을 떠난 다음, 즉 도시의 빌딩 숲을 '벗어나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벗어나면'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앞 문장과 반대의 내용이 이어지므로 '하지만'으로 바꿔야 한다. ② ㉡의 '가정하다'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다'의 의미이므로 옳지 않다.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다'는 '결정하다'로 바꿔야 한다. ④ ㉣은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⑤ ㉤은 시간상 현재에 해당하므로 '떠올리곤 한다'로 고쳐야 한다.

11. [출제의도] 지시하는 대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2>의 상황에 <보기1>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영미가 가리킨 '이 책'(ⓐ)은 수철이 가리킨 '그 책'(ⓓ)과 같은 대상이다. 또한 영미가 가리킨 '그 책'(ⓑ)은 수철이 가리킨 '이 책'(ⓒ)과 같은 대상이고, 수철이 가리킨 '저 책'(ⓔ)은 영미가 가리킨 '저 책'(ⓕ)과 동일한 대상이다.

12. [출제의도] 유의어와 반의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 '약 기운이 오르다.'의 '오르다'는 '약 따위의 기운이 몸 안에 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르다'의 유의어는 '퍼지다', 반의어는 '떨어지다' 또는 '없어지다' 정도의 말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오르다'가 ①에서는 '몸에 살이 많아지다.', ②에서는 '탈 것에 타다.', ③에서는 '등등하다', '떨치다', ④에서는 '실적·효과가 높아지거나 나아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13~15] 언어 제재

<출전> 임동훈,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13. [출제의도] 글쓴이가 글을 쓰게 된 이유와 취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를 통해 분석하여 소개한 뒤, 표준어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글이 아니다. ⑤「한글 맞춤법」의 총칙 제1항을 해설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우리말의 우수성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1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제대로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문단에서 '표준어를 글자로 적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에서 두 가지 방식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과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적는 방식이다. 또한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적는 방식은 어법을 고려해 적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은 소리와 어법을 고려해 표준어를 적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글로 적을까'에 대한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것이지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③ 실사를 밝혀 적는다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의미이다.

1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에서 '얼음'은 '얼다'의 실사 '얼-'에 '-음'이 결합된 말로 '어름'으로 적지 않는다. '얼음'이 '어름'보다 '얼다'의 의미적 연관성을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얼음'은 '얼다'와의 의미적 연관성을 고려한 말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놀이'의 의미와 '놀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 둘은 의미적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실사를 밝혀 적는 것이 뜻을 파악하는 데 편리하다. ② '먹다'의 실사(어간)는 '먹-'이다. ③ '국물'은 '궁물'로 소리 나지만 실사를 밝혀 적을 때 뜻을 파악하기 쉽다. ⑤ '반드시'('꼭, 틀림없이, 기필코'의 뜻)와 '반듯이'('굽지 않고 바르게'의 뜻)를 구별하여 적는 이유는 '반듯하다'와 '반듯이'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지만, '반드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6~19] 예술 제재

<출전> 김영원, 「도자기에 담긴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

16.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고려청자와 분청사기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 도자기에 담긴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려청자는 깔끔하고 이지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으며, 분청사기는 자유분방하고 수더분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른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려청자는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규제를 받으며 만들어졌고,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은 패트런의 주문에 맞춰 제작되었기 때문에, 고려청자의 도공과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는 주문자의 취향에 맞춰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분청사기를 만든 도공과 르네상스 이후의 화가들은 주문자의 요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조건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③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들이 위대한 예술가로 명성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적극 후원한 패트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고려의 도공들이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것은 이 시기의 귀족들이 도공을 예술가로 인정하며 적극 후원하기보다는 규제 속에서 작품을 만들기를 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④ 고려청자에서 분청사기로 변화해 오는 과정에서 도공의 창조적 개성미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르네상스 이후의 그림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예술가들의 독창적 개성이 표출되었던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말했을 뿐 종교적 영향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자신의 예술 의지가 드러난 독자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분청사기를 만든 도공과 르네상스 시기 이후의 화가들이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귀족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우아하고 섬세한 문양이 특징이라면, ㉡은 도공들의 예술 감각이 표현되어 활달하고 자유분방한 문양이 특징이다.

[오답풀이] ① ㉠은 관요에서, ㉡은 민요에서 만들어졌다. ② ㉠이 세련된 곡선미를 담고 있다면, ㉡은 투박하지만 튼튼하고 안정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③ ㉠이 깔끔하고 이지적인 느낌이라면, ㉡은 수더분하고 구수한 느낌이다. ④ ㉠이 귀족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다면, ㉡은 사대부 성리학자와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19.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와 ②의 '입히다'는 '물건의 겉에 무엇을 올리거나 바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은 '입게 하다'의 의미이다.

[20~23] 현대소설 제재

<출전> 황순원, 「소나기」

20.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소년과 소녀의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소년과 소녀의 갈등이 그려져 있지 않고, 순수한 사랑과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그려져 있다.

[오답풀이] 두 사람의 짧고 순수한 사랑이 소녀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면서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있고(②), 평화로운 시골을 배경으로 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고(④), 주로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⑤).

21. [출제의도] 작품을 변형한 후, 원작과 고친 작품의 특징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해 서술자의 위치를 작품 속으로 이동시켜 서술자인 소년이 자신의 심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도록 하여, 독자로 하여금 보다 인물의 심리 및 전체 사건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2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바르게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소녀의 말에 대한 소년의 복잡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소녀의 옷에 묻은 얼룩은 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넜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그로 인해 소년은 소녀와의 교감을 느꼈던 그 순간에 대하여 행복해 하면서도 쑥스러워하는 것이므로, 소년이 소녀에게 무심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소녀는 소년에 대한 거리감이 없어지면서 소년의 등에 순순히 업혔지만, 막상 물이 불어난 도랑을 건널 때 자신도 모르게 두렵고 놀라운 마음을 가지게 된 데서 나타난 행동이다. ⑤ 소녀는 자신의 옷에 소년과의 만남을 떠오르게 하는 얼룩이 남아 있었기에 죽어서도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소년과의 만남에 대한 추억을 잊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에서의 소재의 기능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도랑'은 소녀가 소년에게 의지하고 소년이 소녀를 보호한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소년과 소녀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갈꽃'은 소녀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휘어 꺾었던 소재이다.

[오답풀이] ⓑ는 소녀가 소년에게 던진 조약돌로,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는 소년을 위해 준비한 소녀의 선물로, 소년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24~27] 기술 제재

<출전> 이성규, 「베이징 올림픽과 인공강우 기술」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시각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는 비행기에서 살포한 물질이 구름씨의 역할을 하여 구름 속 빙정이 커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살포된 물질이 구름에 수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풀이] ④ 구름 속 빙정의 크기가 커지면 무거워져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⑤ 빙정의 상태로 떨어지다가 기온에 따라 비 혹은 눈의 상태가 된다.

25.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자료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우제를 설명하고 있다. <보기>를 통해 기우제를 지낼 때 며칠 동안 곡식이나 동물 등의 제물을 태우는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인공강우'와 연결 지어 볼 때 제물을 태울 때 생긴 연기나 재가 구름씨의 역할을 해서 비가 내렸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는 3문단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본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상의 이유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베이징 올림픽 때 실시한 인공강우로 인해 비가 내린 지역의 주변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었다는 본문의 설명을 통해 추리해 본다면, 인공강우가 특정 지역에서 비를 먼저 내리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순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함유하다'는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앞의 '수분을'과 연관 지어 의미를 파악하면 '빗물이나 이슬 같은 물기를 지니다.'는 의미의 '머금다'로 바꿀 수 있지, '물건을 밖으로 옮기거나 꺼내 놓다.'는 의미의 '내놓다'로 바꿀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살포하여'는 뜻이 '액체, 가루 따위를 흩어 뿌려'이므로 '뿌려'로 순화할 수 있다. ② '형성되는데'는 뜻이 '어떤 형상을 이루는데'인데, 문맥을 고려하면 '만들어지는데'로 순화할 수 있다. ④ '증가시키고'는 뜻이 '양이나 수치가 늚. 또는 양이나 수치를 늘리고'이므로 '늘리고'로 순화할 수 있다. ⑤ '투입한'은 뜻이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를 필요한 곳에 넣은'이므로 '들어간'으로 순화할 수 있다.

[28~32] 고전 시가 복합 제재

<출전> (가) 변정, 「맑은 기쁨」
(나) 윤선도, 「만흥(漫興)」
(다) 서거정, 「추풍(秋風)」

28.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는 산골 암자에서의 소박한 생활을 통해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나)에는 자연에서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즐거움과 흥취가, (다)에는 한가로운 생활의 여유와 흐뭇함이 나타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세 작품의 공통점으로는 ③이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문단의 중심 내용과 감상의 주안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3문단을 보면, 새끼 새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글쓴이가 안쓰러워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을 뿐, 글쓴이가 새끼 새와 어울리거나 교감(交感)을 이루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방해하는 요소도 나타나지 않는다.

30. [출제의도] 시어를 화자의 사고 과정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기서의 '그리던 님'은 '먼 뫼'와 비교하기 위한 가정적 대상으로 제시된 것으로, 속세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과는 관련이 없다.

31.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나)의 화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 세속적 부귀영화를, ⓑ는 (다)의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추구하는 한가로운 생활을 의미한다.

3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산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이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심정으로 하나가 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노래한 것으로, 자연에 몰입된 흥취를 느낄 수 있다.

[33~36] 사회 제재

<출전> 이준구, 「소비자이론」

33.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성립 과정과 그 의의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호와 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관념과는 달리 실제 경제 현상 중에는 다른 사람에 영향을 받아 소비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문단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기존 관념과는 다른 실제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네트워크 효과이다. 따라서 실제 경제 현상은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경제 현상(ⓑ)이 기존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⑤ 네트워크 효과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호와 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기존 관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실제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34.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알 수 있듯이 유행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옷의 가격이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떨어질 때, 수요가 5천 벌에서 6천 벌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유행효과가 있으면 6천 벌보다 더 많은 8천 벌의 수요가 있게 된다. 즉 유행효과에 의해 2천 벌의 수요가 더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프에서 A는 옷의 가격이 4만 원일 때의 수요량이므로 5천 벌이고, B는 3만 원일 때 예측되는 수요량이므로 6천 벌이다. 또한 C는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3만 원일 때의 수요량이므로 8천 벌이다. 따라서 유행효과에 의해 만들어진 수요 변화량은 C에서 B를 뺀 양에 해당한다.

35.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속물효과는 특정 상품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면 자신만이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채울 수 없어 그 소비를 중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이 다니던 고급 식당이 음식 가격을 내려 손님들이 몰려오자 다른 고급 식당으로 바꾼 것은 속물효과의 사례에 해당한다.

36. [출제의도] 조사의 쓰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에'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의해'라는 의미로 앞말이 '원인'의 의미를 지닌 부사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마찬가지로 ①도 '바람에 의해'라는 의미로, 앞말이 '원인'의 부사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37~39] 과학 제재

<출전> 곽영직, 「힘, 운동량, 에너지의 삼각 관계」

37.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축구 경기에서 볼 수 있는 바나나킥에 어떤 원리가 숨어있는가를 두 가지 과학 이론, 즉 '베르누이 정리'와 '난류에 관한 역학(力學)'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베르누이 정리'는 공이 휘어지는 현상을 설명해 주고, '난류에 관한 역학'은 공이 휘어지기 전에 직선으로 날아가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두 이론을 상반된 것으로 보거나(③), 새로운 이론이 기존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④).

38. [출제의도] 핵심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4문단에서, 공의 속도가 빠를 때 공 주변에 생기는 난류로 인해 공은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하였다. 따라

서 <보기>의 Ⓐ 지점부터 골문 안까지는 공이 휘어져 날아가고 있으므로 난류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다. 따라서 ②는 잘못된 진술이다.

[오답풀이] Ⓐ 지점까지는 공이 직선으로 날아가고 있으므로 난류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난류는 공의 속도가 108㎞/h보다 빠를 때 발생하므로 ③은 적절한 진술이다.

39.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비행기가 뜨려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누르는 공기의 힘(압력)이 필요하다. ㉠에서는 유체의 속도 차이에 따른 압력차를, ㉡은 압력차에 따른 힘의 방향을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가벼운 소재로 동체를 제작하는 것은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설명하는 ㉠, ㉡과는 무관하며(①), 추진력이 강한 엔진을 장착하면 비행기의 속력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역시 ㉠, ㉡과는 관련이 없다(③).

[40~43] 현대시 제재

<출전> (가)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이육사, 「청포도」
(다) 곽재구, 「계단」

40. [출제의도] 시적 화자의 태도상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청포를 입고' 찾아올 '손님'을, (다)에서는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밟고 올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와 (다)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가)와 (다)의 시적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대상이 부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는 않다.

41.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시적 화자가 독백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대화 형식을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모란이~', '테요'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모란이 피었다 이내 져버린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낀 봄의 모순성이 '찬란한 슬픔의 봄을'과 같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었다.

42. [출제의도] 시의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시에 나타나는 '하늘', '청포도', '청포' 등은 모두 밝고 평화로운 청색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따라서 '청포를 입고 오는 손님'을 괴롭고 답답한 심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시의 전반적인 시상 흐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흰 돛 단 배'는 '하늘' 및 '푸른 바다'와 색채 대비가 이루어져 더욱 선명한 인상을 갖도록 해 준다. ④ '청포도'는 싱그러운 청색의 이미지와 더불어 '주저리주저리', '알알이' 등의 표현을 통해 풍성한 느낌을 준다.

43.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는 '손님'이 오면 두 손을 '흠뿍' 적셔도 좋다는 간절한 바람과 정성껏 손님을 맞이하려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드러난 화자의 심정을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하고, 소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화자의 절망적인 심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매우 긴 시간을 '삼백예순 날'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그만큼 크고 간절한 그리움의 강도를 강조한 것이다. ⑤ 일반적으로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 시적 화자에게는 '당신'이 '신'보다 더욱 절대적인 존재로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46] 인문 제재

<출전> 이이, 「격몽요결」

44. [출제의도] 지문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인간의 본성은 착해서 누구나 학문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지,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 2·3·5·6문단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맹자와 안연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5문단의 앞부분에서 열거를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2문단의 뒷부분에서 글쓴이는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글쓴이의 견해에서 전제가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제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판단을 뜻한다. 이 글의 결론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자.'이다. 이러한 결론의 전제는 4문단에 드러나 있다. 글쓴이는 맹자와 안연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의 본성은 본래 착한 것'이라는 전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46. [출제의도] 글쓴이가 제시한 실천 방법과 관련이 깊은 작품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는 '성인이 되려는 목표를 삼았으면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 깊은 것은 ②이다. '성현'은 이 글에서 말한 '성인'이고 '성현이 행하던 길'은 학문의 길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욕심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다. ③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벗과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남들을 멸시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47~50] 고전소설 제재

<출전> 작자 미상, 「콩쥐팥쥐전」

47.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노파는 오색구슬이 탐이 나서 자기 집으로 가져 온 것이지, 콩쥐가 오색구슬로 변한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다. 노파가 오색구슬이 콩쥐로 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오색구슬을 넣어 둔 반닫이 속에서 콩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반닫이를 열어보았을 때이다.

[오답풀이] ①은 '예전부터 감사 부인과는 친숙한 터라'에서, ②는 '그와 같은 계획을 거행할 때 남한테 빚도 얻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은 노파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감사가 병풍 뒤에서 들려오는 콩쥐의 목소리를 듣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팥쥐가 콩쥐를 죽이고 콩쥐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바른 진술이다.

48. [출제의도] 다른 정보와 연관을 지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에 제시된 내용은 팥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콩쥐가 연꽃 및 오색구슬로 환생한 후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 팥쥐는 중벌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죽음→재생→악인에 대한 응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권선징악의 윤리적인 주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콩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은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②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덧붙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콩쥐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③ 콩쥐는 다시 살아나서 감사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았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⑤ 감사는 팥쥐에게 속아 콩쥐의 죽음을 몰랐던 것이므로 콩쥐와 감사 사이에 오해가 있어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9.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콩쥐는 노파에게 부탁하여 생일잔치를 열고 감사를 초대한 후, 짝이 다른 젓가락을 감사에게 내놓았다. 젓가락 짝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가 노파를 꾸짖자, 콩쥐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젓가락 짝이 틀린 것은 똑똑히 알면서 사람 짝이 틀린 것은 왜 모르느냐'고 감사를 비판한다. 이를 통해 감사는 아내(콩쥐 행세를 하는 팥쥐)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전후 사정을 알아보아 결국 팥쥐가 콩쥐를 죽이고 콩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러므로 '젓가락'은 감사로 하여금 잘못된 상황, 즉 팥쥐가 콩쥐 행세를 해 온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50. [출제의도] 관용어구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팥쥐의 잘못이 드러나 벌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것은 '사람의 선악에 따라 그 갚음을 받는 일'을 의미하는 인과응보(因果應報)와 관련 깊다.

[오답풀이] ①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인데, 감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팥쥐를 이용하다가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팥쥐에게 속임을 당했으므로 ㉠과는 관련이 없다. ②는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편의 주장을 반박함.', ④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을 의미하므로 ㉠과는 관련이 없다.